연합노보

www.newsunion.co.kr

특보 2012.4.2 (월)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110-140) 서울 중구 수하동 67 / 전화 398-3620~2 / 팩스 398-3630 / 발행인 공병설·편집인 정성호.구정모

‘초지일관 연합뉴스’ 파업 중에도 해명전문?

연합뉴스 바로 세우기를 위한 노조의 파업투쟁 기간에도 불공정 논란 소지가 있는 보도가 또다시 불거졌다.

총선 정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MB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살펴보자.

파업 중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는 3월 29일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을 입수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30일 새벽 ‘리셋 KBS9’를 통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문건 공개 당일 연합뉴스가 처리한 관련 기사는 문화부에서 송고한 「KBS 새노조 “총리실 민간사찰 문건 2천619건 입수”」(3/29 18:08) 단 하나뿐이었다.

제목, 바이라인, 이메일 주소를 모두 합쳐 501자에 불과한 이 기사는 ‘리셋 KBS9’가 보도할 예정이라는 소개에 그친, 그 흔한 (종합)조차 뒤따르지 않는 단신에 불과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음날 조간신문들은 이번 폭로를 1면과 종합면에 걸쳐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반면 연합은 폭로 내용 자체를 다루는 메인 스트레이트는 문화부도 정치부도 아닌 사회부에서 「총리실 3년간 전방위 사찰 2천619건 드러나」(3/30 10:54)라는 제목으로 나갔다.

폭로 다음날부터 정치부 등 관련 부서들은 여야 공방 등 형식을 빌어 이 내용을 다뤘지만 기사의 속도뿐 아니라 질과 양에서도 이미 타 매체들에 기선을 제압당한 뒤였다.

뉴스통신사 구성원으로서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베끼기 저널리즘’ · ’따옴표 저널리즘’의 굴욕을 겪은 셈이다.

그나마 그 ‘따옴표의 크기’조차 여(與)냐 야(野)냐 청(靑)이냐에 따라 현격히 달라 “우리가 해명전문 언론이냐”는 연합뉴스 구성원들의 자괴감을 더욱 심화시켰다.

폭로 시점부터 나흘간 정치부에서 송고된 긴급기사는 두 건이었고 하나는 여당의 입장, 나머지 하나는 청와대의 입장을 다룬 것이었다. 「새누리, ‘불법사찰’ 특검 제안..권재진 사퇴 요구(1보)」(3/31 12:06)와 「청와대 “사찰 사례 대부분 노무현 정부서 이뤄져”」(3/31 17:06)였다.

두 건 모두 입력 · 작성기자는 중요도를 ‘중요’로 설정했으나, 데스크는 작성 기자의 판단과 달리 이를 ‘긴급’으로 상향해 송고했다.

그 결과 토요일 저녁에 긴급뉴스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폭로 자체에 대한 기사는 ‘게시판’ 수준과 비슷한 단신으로 내보내고 메인 스트레이트조차 오후 느즈막히 내보내면서, 여권의 대응과 청와대의 해명에 관해서는 긴급기사로 난리를 피운 것이다.

이번 기사를 통해 우리는 연합뉴스의 존립 기반인 ‘불편부당한 보도’가 허물어지면 살 길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우리는 파업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공정보도를 쟁취해내고 말 것이다.

파업 UCC 종결자 ‘용감한 사원들’

입사 3년차 조합원 주축…언론노조 공연서도 ‘호평’

언론사 파업 UCC(사용자제작콘텐츠)계의 종결자가 떴다. 바로 3년차 연합뉴스 조합원들이 주축이 돼 자체제작해 3월 28일 공개한 ‘용감한 연합뉴스’ 뮤직비디오가 바로 그것.

‘마이클 잭슨 형님의 스릴러 이후 가장 충격적인 뮤비’라는 극찬을 받으며 유튜브에 배포된 지 3일 만에 조회수 2천건을 돌파했다. 유력 인터넷 블로그에 링크되고 트위터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낳기도 했다.

뮤직비디오의 제작 · 연출 · 출연을 도맡은 ‘용감한 사원들’은 30일 밤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언론노조 집회 현장에서 공연을 펼쳐 연합뉴스 조합원의 공정보도 쟁취 열망이 얼마나 화끈·발랄·깜찍한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러닝타임 2분46초의 이 눈부신 뮤직비디오는 입사시험 때보다 탄탄한 준비, 기사 쓸 때보다 치밀한 기획, 민망함을 모르는 당당함이 낳은 연합뉴스 파업의 커다란 성취다.

조합원들은 지난달 중순께 공연을 준비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한 노조 집행부 선배의 가벼운 제안에 이왕 한다면 역사에 남을 수준이 돼야겠다고 작심하고서 시작했다고 한다.

개그콘서트 〈용감한녀석들〉 코너에 쓰인 노래의 개사에만 사흘이, 녹음에는 5시간 가까이 걸렸다. 30개가 넘는 신(scene)을 위해 나흘에 걸쳐 꼼꼼히 콘티를 짰고, 명동, 청계천, 서울광장, 한빛공원, 사장실 앞 등을 누비며 조합원들의 열정을 카메라에 담았다.

12시간에 걸쳐 진행된 촬영 당일은 기상예보와 달리 몹시 추웠던 탓에 얇은 정장 차림의 조합원들이 한동안 감기몸살을 앓았다는 후문이다.

콘티구성과 촬영 등에 참여한 민경락 조합원은 “빡빡한 일정속에서 같은 장면을여러 번 찍느라 모두 고생을 많이 했다”며 “다들 아마추어이고 뮤비 작업도 처음이라 어렵겠다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모두의 재능이 조금씩 모여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보컬 감독과 안무 구성 등을 맡은 김혜영 조합원은 “파업한 뒤 주말에도 회의하고 제작하느라 전혀 쉬지도 못했다. 영상을 본 선배들도 ‘이 정도로 열심히 취재를 하지 그랬냐’라며 눙을 친다”고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파업’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무언가를 ‘재미있게’ 만들면 주변에서 어떻게 바라볼지 조금 걱정도 됐다고 했다.

김 조합원은 “혹시나 선배들이 대표성도 없는 후배들이 너무 나선다고 생각할까 불안했다”고 털어놨다.

한지훈 조합원은 “처음에는 알록달록한 의상을 입기로 했다가 이 싸움이 가볍게 보이는 게 우려돼 정중하게 옷을 갖춰 입기로 했다”며 제작진의 남모를 고뇌를 드러냈다.

청계천에서 김동호 조합원의 장면을 찍을 때는 여

2면에 계속 ☞

지금 지방취재본부는 투쟁중

경남본부 "뭉쳐서 투쟁하면 살고, 흩어지면 쪽박찬다"

연합뉴스 총파업 16일째를 맞은 30일 경남취재본부의 투쟁 열의가 뜨겁다. 본부에서 총파업에 함께 하는 조합원은 김영만 대의원을 포함한 모두 7명.

조합원들은 폭우가 예상되는 이날 오후 부산역 광장에서 열리는 '언론낙하산 퇴출과 정수장학회 사회환수를 위한 콘서트'에 참석했다.

2008년에 입사한 김재홍 조합원은 "이번 봄비는 박정찬 사장 퇴진과 공정보도를 기원하는 하늘의 선물"이라며 여유를 보였다.

이 같은 여유는 본부 특유의 파업 프로그램 덕분이다.

조합원들은 지난 28일 통영에서 파업 프로그램의 하나로 혹독한 전지훈련겸 MT를 마쳤다. 조합원들은 창원에서 차량으로 1시간30분을 달려 통영에 도착했다.

도착과 동시에 미륵산(해발 461m) 등반을 시작,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의 도움으로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정상을 정복했다.

최병길 조합원은 "기자 생활 20여년 동안 해가 중천에 있는 평일에 등산을 해보긴 처음인 것 같다"며 "천혜의 절경을 보며 단합의 시간을 갖게 해준 사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등산에 이어 인근 수륙마을 낚시터로 향했다.

이곳에서 '박정찬 사장에 버금가는 대물을 못 낚으면 집에 못 간다'는 결의로 낚싯대를 움켜잡고 미끼를 던지기 시작했다.

낚시 자체를 이날 처음 해본 조합원들은 드넓은 남해를 갈라버릴 기세로 월척을 노렸다.

"우와~", "낚싯대가 바다 속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다", "이게 바로 손맛이구나." 조합원들은 2시간만에 망상어 7마리를 낚는 쾌거를 올렸다.

황봉규 조합원은 낚싯대가 부러질 정도의 사투를 벌인 끝에 대물을 움켜잡았다. 황 조합원은 "우리 본부조합원은 물론 연합뉴스 전체 조합원의 투쟁 결의에 남해 용왕이 감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뒤늦게 조합원들의 방문 소식을 접한 통영 한 조선소 간부는 "따뜻한 캔커피라고 사 들고 가서 응원하고 싶었는데 왜 미리 얘기를 안했느냐"며 섭섭해했다.

거제시청 공보계 한 관계자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며 "반드시 목표한 바를 이루고 기자실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연합뉴스 구석구석

-한민족센터

연합뉴스에는 다른 언론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부서가 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민족센터가 바로 그곳이다.

한민족센터 조합원 9명은 '연합뉴스 바로 세우기'를 위한 이번 파업에 전원이 동참해 큰 힘이 되고 있다.

가족의 암투병과 임신, 병환 등 일부 조합원들은 매일 파업 집회에 참석하지는 못하는 상황에서도 카카오톡의 그룹채팅을 이용해 파업 소식을 실시간으로 주고 받으며 서로 격려하고 있다.

한민족센터는 2007년 6월 설립된 곳으로 올해로 5년째를 맞았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재외동포들이 국내 선거권을 갖게 되는 것을 계기로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를 위한 취재보도와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됐다.

이후 다문화 현상 조명, 국가 브랜드 제고, 한인소식지 발간 업무 등이 추가되면서 현재는 재외동포부, 다문화부, 네트워크사업부, 미디어출판부 4개 부서로 운영되고 있다.

재외동포부는 국외의 한국인을 취재하는 부서로 왕길환, 성혜미 조합원이 있다.

두 조합원은 재외동포재단,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단 3개의 기관을 출입하지만 취재영역은 전 세계다.

정치, 문화,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포들의 활약상과 동포사회의 이슈를 알림으로써 재외동포 사회와 고국 간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한민족센터가 정식으로 발족하기 전부터 재외동포를 담당해온 왕길환 조합원은 러시아의 유명 한인 지휘자부터 연해주의 이름없는 고려인까지 만나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재외동포 인적 네트워크로는 국내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왕 조합원은 형님이 암 투병 중이어서 간호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파업에도 참여하는 강행군을 보여주고 있다.

다문화부에선 강진욱, 경수현 조합원이 이민자의 증가와 조선족의 귀환 등으로 형성된 다문화의 현상과 그에 따라 노출되는 사회적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있다.

파업 참가자 중 고참격인 경 조합원은 쟁의대책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다문화부는 다문화인 현주소를 짚은 〈세계인의 날〉 특집, 다문화인 중 가장 인구 비중이 높은 조선족 현황을 점검한 〈조선족 1% 시대〉 등의 기획기사들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도왔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민족센터에서는 2개의 기사 제작 부서와 함께 공익적인 사업을 벌이는 2개의 부서도 함께 움직인다.

네트워크사업부는 매년 재외동포, 다문화 관계자들과 사업을 펼치고 있다.

고동선, 최인하, 박찬미 조합원이 다양한 공익사업을 펼치며 활약하고 있다.

특히 최인하 조합원은 임신 중에도 파업 현장에서 동료들과 투쟁 의지를 나누고 있다.

이들이 기획하는 대표적인 행사로는 연합뉴스가 월드옥타와 공동 개최하는 '세계 한인경제인 대회'를 꼽을 수 있다.

지난 13년간 열린 대회는 세계 곳곳에서 무역에 종사하는 한인 1천여명이 참가하는 대표적인 동포사회 행사로 자리잡았다.

또 전국 다문화가족 500명을 초청해 매년 치르는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대회' 역시 다문화 가족 관련 전국 최대 규모 스포츠 행사다.

미디어출판부에서는 유진, 강성철 조합원이 전 세계 흩어져 있는 한국인들의 소식을 전달하는 소식지 출판 업무를 맡고 있다.

유 조합원은 모국의 전통문화, 분야별 소식, 국가 시책 등을 담아 중국과 러시아 등 57개국 한글학교와 한인회 등에 배포되는 월간 '고향의 향기'를 맡고 있고, 강 조합원은 재외동포재단의 소식을 알리는 월간 '한인네트워크' 출판을 전담한다.

대외적인 행사를 많이 치르는 한민족센터는 현 경영진의 경직된 의사결정때문에 고충을 겪은 부서중 하나다.

한민족센터가 이번 파업에 참여한 이유 중 하나도 의사 결정이 사장 중심으로 이뤄지는 구조를 깨고 사내 민주화를 이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행사에서 1분 단위로 쪼개지는 의전을 주변에서 지켜본 기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의 의전과 사업 진행이 너무 구시대적"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연합뉴스 파업 소식이 알려지자 평소 교류했던 기관들에서는 격려메시지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조합원들은 "회사가 잘못되고 있으면 구성원이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게 이번 파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의지를 다잡았다.

☞1면에 이어

행 중이던 중국 관광객들이 한류 연예인의 영화 촬영 모습인 것으로 '어처구니 없이' 오해하고 멀리서 사진촬영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어떤 트위터리안이 관심을 보이며 촬영장 사진을 찍어 트위터에 미리 퍼뜨린 것과 명동과 청계천에서 회사의 몇몇 간부급 선배들과 갑자기 마주쳐 당황했던 것이 제작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꼽은 기억에 남을 만한 에피소드였다.

제작진은 무엇보다 조합원간 유대감을 재확인하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서로의 재능을 발견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입을 모았다.

황정현 조합원은 "참가자들이 모든 회의에 사실상 다 모였다. 각자가 지닌 재능이나 개성을 잘 융합시켜서 작품이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다"면서도 "더 많은 분이 참여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배상희 조합원도 "다들 너무 열심히 참여해서 함께한 조합원 모두 정말 자랑스럽다. 특히 부산에서 상영할 때는 흥분돼서 가슴까지 두근거렸다"고 소회를 밝혔다.

오디오 감독을 맡은 박지호 조합원은 "워낙 후배들이 신나게 잘하더라.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힘든 줄 모르고 웃으면서 작업했다"며 미소 지었다.